

(2004.12.3일 석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2004. 11. 30 배포
- ▶ 총 쪽 (사진없음)

보 도 자 료

▶ 국제협력담당관실 조정숙사무관

TEL : 503-9764

E-MAIL : fivemons@freechal.com

FAX : 507-4755

청년고용을 위한 “평생학습복지체제” 강조

- 김대환 노동부장관, ILO/일본 청년고용 심포지엄시 기조연설

-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04.12.2-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ILO/일본 청년고용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으며
 - “한국의 청년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조연설(12.3일 11:45)을 통해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부대책을 소개하고 학습-고용-복지가 연계된 평생학습복지체제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장관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의 진전과 경쟁의 가속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나,
 -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는 직업능력의 부족, 노동시장 정보 부재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경쟁의 틈 속에서 이들을 실업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어서 한국에서 7%대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의 원인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와 힘든 힘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선호, 그리고 취업지원 인프라의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업계 인력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및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단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직업지도 강화 등의 대책도 소개하였다.

□ 아울러 재학중인 청년, 학교와 노동시장에 속하지 않은 청년,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종료하지 못한 취약청년 등 각 집단에 대해 특성에 적합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전은 물론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이루어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고용-복지’가 연계된 평생학습복지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금번 일본 청년고용 심포지엄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일본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서 ILO 회원국의 노동장관, IL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각국 정부대표 및 학계인사 등이 참석하였다.

— ILO/일본 청년고용 심포지엄 —

장관님 기조연설문(초안)

2004. 12.

노 동 부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님,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님,
『ILO/일본 청년고용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먼저,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일본정부와 ILO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청년고용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세계화와 청년의 미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사회 모든 부문에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시장은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경쟁의 가속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세계화는 자칫, 일부 계층에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뿐 전부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층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자칫 직업능력의 부족, 노동시장 정보 부재라는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경쟁의 틈 속에서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문제와 함께 청년고용에 대해 고민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화는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된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번영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계화를 위해 한국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본인은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한국은 지난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여 왔습니다. 수출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정책도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에 주력하였습니다.

1997년말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적·질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몰아닥친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를 새롭게 변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간·정부 등 모든 부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실기업들이 퇴출되었습니다.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퇴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 채용감소, 여기에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흡수력의 감소가 더해지면서 외환위기 이전 2~3%대에서 안정되던 실업률은 1998년 7.0%까지 치솟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용상황의 악화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던 청년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6년 4.6%이던 청년실업률이 1998년에는 12.2%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실업대란에 직면하면서 대한민국은 내각을 『실업내각』으로 명명하면서 국민 모두의 힘을 합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자영업 창업지원, 청년층 인턴사업 등 단기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육성 등 근원적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 강화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부단한 구조개혁의 성과와 맞물리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3%대의 실업률로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구조개혁 노력은 기업의 신규채용시장을 여전히 위축되게 하였고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가는 최근에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7%대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수요측면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평균 7%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2003년 3.1%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고용창출력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공급측면에서는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대학졸업자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1990년 33.2%에 불과하던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이 2004년에는 81.3%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95~2003년간 대학 졸업자수는 18만명이 증가하여 고학력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힘든 일을 기피하는 등 청년층 선호의 차이도 청년 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금융업·공기업 등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채용동향이나 산업계 수요 등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기능이 취약한 것도 청년실업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원인에 따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산업계 인력수요와 교육·훈련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노동시장까지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며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상당기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동안 청년층이 취업 의사와 취업능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대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층에 다양한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업에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직장체험 사업을 청년실업 대책의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학중인 청년층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 직업과 직장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층은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장년층에 비해 직업에 대한 의식이 미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확립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직업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 제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청년층이 성장단계에 맞게 지속적으로 직업에 대해 교육을 받고 상담하는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건전한 직업의식과 직업탐색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직 재학중인 청년층(Youth at school)에게는 계속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노동시장과 학교 등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청년층(Youth neither at school nor work)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종료하지 못한 취약청년층(Youth at risk)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취약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주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약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애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능력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이전은 물론 진입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화의 진전과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라 고지식·고숙력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한 유형의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개인의 고용가능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며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보유하는 지식과 기술의 격차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가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서 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학습-고용-복지가 연계된 평생 학습복지체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ILO 또한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에 개최되는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5년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하는 ILO Asian Regional Meeting에서도 청년 고용은 중요한 의제로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과 2005년의 일련의 행사가 아시아지역은 물론 모든 ILO 회원국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